

차 오 림

2017년 제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7년 12월 07일(목) 12:00
- 장소 : 태능배갈비

2017년 제4분기 차오름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7. 12. 07(목) 12:00	장 소	태능배갈비
참석현황	이원근, 황인성, 박지영 박항규, 장선미, 김학영, 이주경 (불참 : 추봉식, 나병호)	기 록 자	심은영(총무팀장)
운영위원 구성인원	-.전문가 대표(1명) : 이원근 -.시설장(1명) : 황인성 -.시설종사자 대표(1명) : 박지영 -.이용인 대표(1명) : 박항규 -.보호자 대표(1명) : 장선미 -.공익단체(1명) : 김학영 -.후원자 대표(1명) : 추봉식 -.관계공무원(1명) : 이주경 -.전문가 대표(1명) : 나병호		
회의안건	1. 4/4분기 주요 사업 실적 및 후원금(품) 보고 2. 2017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3. 2018년 운영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심의		
- 회 의 내 용 -			
▶ 성원보고 ○이원근 위원장 : 지금부터 2017년 4분기 운영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영 위원님의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위원 : 차오름 운영위원 9명중 과반수이상 7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제4분기 운영위원회 정기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나병호 위원님과 추봉식 위원님께서 바쁜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원근 위원장 : 2017년의 마지막 운영위원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동장군이 기승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4분기 운영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제 1호 안 : 2017년 4/4분기 주요 사업 실적 및 후원금품 보고 ○박지영 위원 :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다) 이번 정기회의는 4/4분기 주요 사업실적 및 후원금(품) 보고,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의, 2018년 운영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매출현황입니다. 4/4분기 매출은 10월 34,744,596원, 11월 31,267,225원, 12월은 아직 마감되지 않았지만 35,000,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출금액이 높지 않은 것은 기능보강 공사로 인하여 장치산업을 연기하고 임가공 및 사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축공사의 연기로 장치산업이 조금 더 연기 되겠지만 역량 있는 업체를 개발하여 매출 상승 및 일거리 공백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 4분기 회계결산입니다. 4분기 현재 세입 1,429,485,344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정부보조금 777,640,994원, 사업수입 453,459,408원, 후원금 750,000원, 법인전입금 130,000,000원, 잡수입 8,606,515원, 전년도 이월금 59,028,427원입니다.

세출로는 사무비 1,031,715,308원, 재산조성비 62,594,321원, 사업비 126,403,892원, 차기이월금은 208,771,823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의 내역은 12월 인건비, 마케팅사업비 및 자부담 등 사업이 마감되지 않은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케팅사업은 마케팅기사의 인건비를 지급한 후 마케팅사업을 위하여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구입하여 업체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4분기 후원금품 보고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현재 잔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오름 후원금이 대부분 잔고가 없었으나 현재 작지만 후원자 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져서 후원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가 후원자 개발도 열심히 하여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근로장애인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동료들과의 친교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11월 17일 롯데월드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근로장애인들 만족도 조사에서 나들이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낮은 만족도가 나와서 날씨가 춥지만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곳을 택하여 결정한 곳이 롯데월드였습니다. 오랜만에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12월 21일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로 차오름 송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문화가 있는 송년회를 계획하여 오전 근무 후 영화관람, 저녁식사로 고기부패를 예약하였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는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근로장애인들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심사에 따라 200,000원~1,300,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업평가 및 직업재활수립을 통하여 근로장애인 업무현황을 평가하고 사례회의를 통하여 임금적용 및 2018년 사업배치 즉,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찾아 훈련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매출은 아직 작지만 신규거래처 개발이 있었습니다. 데코미와 키즈원이라는 회사이고 현재 적은양이지만 사출, 생산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작업속도 및 능률이 높지 않으나 근로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는 공정에 배치하고 지도하여 내년에는 생산량이 증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일곱번째로, 임면 보고입니다. 근로장애인 입퇴사가 있었습니다. 10월 31일자 이창훈 근로장애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워크넷, 벼룩시장 등 인력공고를 통하여 인원보충으로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김명지 근로장애인이 입사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심사 후 입사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업무에 적응하여 근로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사자 입사도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비워있던 마케팅기사에 허운 선생님께서 10월 16일 입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5개월(2017.10.16 ~ 2018.2.28)이나 소속감을 가지고 차오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 4분기 중요사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장 : 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 하였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박지영 위원 : 최저임금적용제외 심사는 같은 공정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받지 않는 장애인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80%로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평가방법입니다.

○황인성 위원 : 이 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더 최저임금을 주려고 합니다.

○장선미 위원 : 보호자 대표로서 모든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급여 인상을 보며 심사방법이 궁금하였는데 설명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근로장애인들이 공정하며 매년 급여가 오를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황인성 위원 : 네. 장선미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 사업 주로는 부담감이 크지만 근로장애인들의 능력이 향상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역량있는 차오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전 종사자들이 노력 할 것입니다.

○이주경 위원 : 차오름 환경이 현재 열악하지만 내년 공사 후를 기대하며 더욱 발전 해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박지영 위원 : 네. 근로장애인과 종사자가 모두가 근무하기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2호 안 :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박지영 위원 : 2017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각 1,570,000,000원으로 세입예산 보조금수입 800,615,000원, 사업수입 569,856,573원, 후원금수입 1,500,000원, 법인전입금수입 120,000,000원, 잡수입 9,000,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654,520,000원, 업무추진비 3,000,000원, 사무운영비 161,500,000원, 시설비 176,000,000원, 사업운영비 13,910,000원, 사업비 163,120,000원, 예비비 400,000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업비 감소가 1,215,800,000원입니다. 감소가 큰 이유는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신축이 2018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수입 또한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을 확인해 보시면 시 예산 확보로 운영비를 20,000,000원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보조금으로 차오름에서 오랫동안 계획해 왔던 운동장 포장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 담당 이주경 주무관님이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주경 위원 : 다행히 올해는 운영비 예산이 남아 남양주시 관내 직업재활 4개소에 필요사업을 신청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지원으로 근로장애인들의 근로환경 및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 저 또한 보람을 느낍니다.

○황인성 위원 : 중증근로장애인이 우기 및 동절기에 비포장 운동장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주 2회 이상 5톤이상 화물차량이 수시로 입차함에 있어 운동장의 훼손이 심하여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 사업 또한 진행 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원근 위원장 : 지속적인 분진으로 인해 사출성형실 안에 설치된 고가장비인 사출성형기, 분쇄기, 착색기 등 기계관리비로 인해 매년 시설장비유지비가 상승되어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입니다.

○박지영 위원 :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비포장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진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 또한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사출성형실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적재해 놓으면 분진으로 인하여 보관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이중 작업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 어느 곳보다 포장이 필요했던 곳이나 예산문제로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올해 사업이 종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날씨가 추워서 포장공사가 가능합니까?

○이원근 위원장 : 포장공사는 아스콘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겨울 날씨로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장선미 위원 : 운동장 바닥이 비포장이어서 여름철이 되면 건조한 땅의 분진발생으로 특히 사출성형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 및 종사자들이 걱정이 되었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황인성 위원 : 이번 포장공사로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분진 발생 감소로 생산제품 LOSS 감소 및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지영 위원 : 운동장포장공사가 올해 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미, 이원근, 박항규, 김학영, 황인성, 이주경 위원 : 없습니다.

▶ 제 3호 안 : 2018년 운영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심의

○박지영 위원 : 2018년 운영계획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근로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강화와 사기진작, 그리고 종사자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름다운동행 YOU & I”을 내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장 선생님들과 근로장애인들이 조를 맺어 1년에 2번씩 나들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형성이 더욱 돈독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직장생활에서 힘듦, 스트레스 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 2017년 사업과 대부분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장 : 소규모 나들이를 통하여 힘든 직장생활에서 능률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확보를 잘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모두 진행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종사자 분들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김학영 위원 : 사업계획서를 보니 근로장애인들을 생각하며 작성 한 것이 느껴집니다. 2018년은 근로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사기진작을 비롯하여 근로의욕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박항규 위원 : 올해는 신축공사로 인하여 나들이 횟수가 줄어들고 캠프를 진행하지 못하여 근로장애인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공사가 내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지만 근로장애인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동아리활동 및 아름다운운동행 YOU & I 등 모든 사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황인성 위원 : 네. 박항규 위원님의 말씀처럼 내년에는 경영에서부터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원근 위원 : 매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근로장애인들의 복지와 능률 향상을 위해 차오름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앞으로도 발전하는 차오름이 되길 응원합니다.

○박지영 위원 : 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18년 차오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오름 2018년 세입세출 예산은 각 2,620,000,000원으로 보조금수입 1,915,905,000원, 사업수입 500,000,000원, 후원금수입 2,000,000원, 법인전입금 70,000,000원, 이월금 100,000,000원, 잡수입 3,09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1,177,547,000원, 업무추진비 4,000,000원, 사무운영비 172,900,000원, 시설비 1,130,833,000원, 사업운영비 14,800,000원, 사업비 119,520,000원, 예비비 400,000원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이월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보강공사가 2018년 사업으로 이월되면서 법인에서 지원받은 기능보강공사 자부담도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데코미 등 신규업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2018년 사업수입은 2017년보다 낮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나 능률이 최상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신축으로 작업장 공간부족 및 장치산업 등 역량 있는 사업을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애인과 종사자의 급식비가 올해까지는 특별회계로 처리하였는데 2018년부터는 시설회계 생계비 사업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주경 위원 : 담당 공무원으로써 앞으로도 투명한 회계 및 경영으로 근로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부탁드립니다.

○황인성 위원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로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내년에는 모든 사업을 진행 가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원근 위원장 : 해마다 경기는 어려워지고 최저임금은 인상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근로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셔서 운영위원장으로써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안건을 제시하실 분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미, 이주경, 박항규, 황인성, 김학영, 박지영 위원 : 없습니다.

이원근위원장 :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앞으로도 근로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2017년 4/4분기 시설 운영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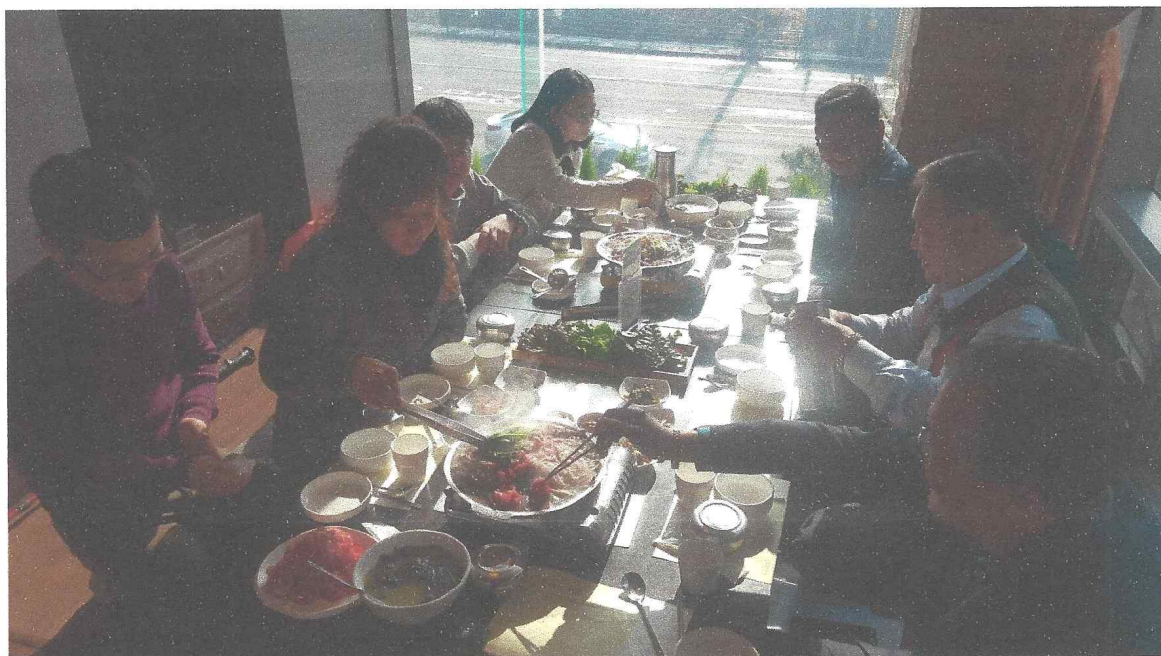
2017년 12월 07일

사회복지법인 차 오 름
신망애복지재단

4분기 시설 운영위원회의 진행사진



4/4분기 사업 보고 中



운영위원회의 후 식사中